

'317만명' 전남광주특별시 초고령사회 대응 시급

다음달 1일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 특별시가 인구 317만명의 전국 5위 규모 광역생활권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구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구조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노인부양비는 통합특별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광주와 전남의 통합 이후 변화할 사회·복지 환경을 분석한 '광주복지브리프 제60호-통계로 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브리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인구·고용·복지·돌봄 분야 주요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합 이후 필요한

광주시사회서비스원, 복지브리프 발간...복지정책 전환 필요 AI 돌봄·청년 정주 일자리·광역 복지망 등 구축 과제 제시

정책 방향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석 결과 통합특별시 인구는 317만 1000명으로 전국 5위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1만2000여km로 전국 3위 수준의 광역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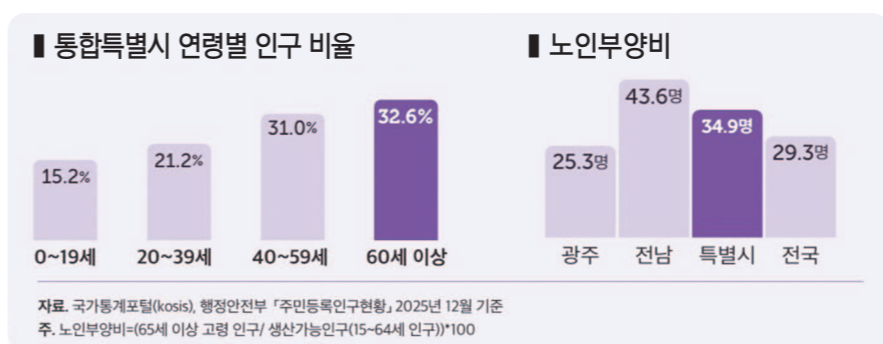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특별시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32.6%에 달하며, 노인 인구는 76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돌봄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부양비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통합특별시의 노인부양비는 34.9명으로 전국 평균(29.3명)보다 높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돌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복지 인프라는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특별시에는 장기요양기관 2372개소와 장기요양요원 5만 9000여명, 사회복지시설 3710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만3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어 광역 단위 돌봄체계 구축의 기반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 이후 핵심 정책 과제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통합돌봄 강화 △청년 정주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 △광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AI·ICT 기반 스마트 돌봄 확대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이번 분석이 광주·전남 통합 이후 예상되는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돌봄 정책을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삼 광주시사회서비스원장은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자 기회"라며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다양한 통계적 과제가 모두가 함께 돌보고 성장하는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복지·돌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 연 3.41% 금리 정기예금 특판

비대면 전용...이달 말까지 1000억원 한도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최고 연 3.41%의 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특판! 디지털예금 금리U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총 1000억원 한도로 운영되는 이번 이벤트는 신규입금을 포함해 적전 1개월 이내 광주은행 정기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 혜택은 이벤트 기간 중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가입금액 1000만원 이상으로 신규 가입한 뒤 만기 해지하는 경우 적용된다.

최고 연 3.41% 금리(5월 28일 기준 세전)는 기본금리 연 3.10%에 마케팅 등의 우대금리 0.10%p와 이벤트 우대금리 0.21%p를 더한 금리다.

상품 가입은 광주은행 앱(APP)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상용 광주은행 신성장사업부장은 "디지털 금융 상품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경쟁력 있는 금리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복직이하는 글로벌 채용박람회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글로벌 채용박람회 '2026 글로벌 엘리트 페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농협, 청정축산 환경대상 우수농가 4곳 선정

곡성·구례·보성·해남 대표 농장 전국 본선 진출

농협 전남본부는 1일 열린 전남농협 정례대회에서 '제9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전남지역 우수농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농가는 곡성축협 만금2농장(대표 조신익), 구례축협 섬지농장(대표 신승구), 보성축협 영화농장(대표 최영화), 해남진도축협 만회농장(대표 김소영) 등이다.

청정축산 환경대상은 환경친화적 축산 경영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우수 축산농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는 깨끗한 축산농장 문화 정착과 청정축산 실천 확산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활동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농장은 전남 대표로 제9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전국 본선 심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제8회 청정축산 환경대상에서는 화순축협 연우농장(대표 박은희)이 최우수상(장관영)을 수상한 바 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청정축산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농가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다"며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활동이 현장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농장 환경개선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K-푸드 수출 훈풍 속 국내 식품업계는 '이중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내수 부진...외식 소비는 뒷걸음

국내 식품제조업이 K-푸드(K-Food) 수출 호조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와 환율·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25년~2026년 1분기 식품제조업 동향'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국내 식품제조업 출하는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K-푸드 수출액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2025년 식품제조업의 실질 GDP는 3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간편식품 제조 수요 확대와 라면 등 K-푸드의 해외 수출 증가가 주된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제조업 증가율(+2.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가계의 식품 지출에서는 온도 차가 뚜렷했다. 2025년 음식료품에 대한 실질 지출액은 123.5조 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으나, 외식 부문의 실질 지출액은 115.9조 원으로 오히려 0.1% 감소했다. 배달 수요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과 인건비, 임대료 상승분이 외식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외식 소비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1분기 식품제조업 출하는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식품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고, 음료제조업 출하지수는 6.7% 감소해 낙폭이 더 컸다.

업종별로 보면 알콜음료(-9.3%), 비알콜음료(-4.7%), 사료 및 조제식품(-3.9%), 과·채·채가공(-2.8%) 등의 순으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주류 업종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 MZ세대의 음주 기피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생산자물가는 반대로 상승세다. 2026년 1분기 식품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올랐고, 음료제조업은 1.6% 상승했다. 출하는 줄고 가격은 오르는 이중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재고 상황도 악화 일로다. 2026년 1분기 식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의 재고율이 모두 100%를 넘어섰다. 음료제조업의 경우 2025년 재고율이 121.7%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하보다 재고가 빠르게 쌓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업계의 재고 부담이 심화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대조적으로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26년 1분기 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은 3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농식품(K-Food)이 25.2억 달러(+3.3%), 농산품 분야가 7.3억 달러(+9.4%)로 고르게 성장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2026년 1분기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32만 600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며 최근 5년 1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음료제조업 취업자는 1만 8409명으로 3.4% 감소했고, 상용직 비율도 92.6%로 전년 대비 0.4%p 소폭 하락해 고용 안정성에는 다소 그늘이 드리워졌다.

황해은 기자 nab@gjdream.com

신협, 비대면 계좌이동서비스 출시 이벤트

자동납부 신청자 대상

신협중앙회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협 계좌이동서비스는 타금융기관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내역을 신협 계좌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자동이체를 개별적으로 해지하고 다시 등록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자동납부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자동납부 항목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송금 항목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벤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신협 영업점을 통해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가운데 매일 1명을 추첨해 총 5명에게 현금 1돈을 증정한다.

신청은 전국 신협 영업점과 은행 등 전자금융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자금융 채널을 통한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글로벌선사 소장단 간담회

맞춤형 인센티브 전략 안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글로벌 핵심선사 운항본부 소장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광양항의 실질적인 신규 항로 개설과 항만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여수광양항 소개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전략 안내를 시작으로 자동화부두 소개, 애로사항 청취,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항만공사는 간담회에 이어 여수광양항의 역동적인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올리원(All-in-One) 현장 마케팅'도 실시했다. 이들은 항만공사 홍보관, 항만 안내선으로 여수광양항의 인프라 시찰, 항만의 안전 핵심 기지인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탐방했다.

최관호 항만공사장은 "여수광양항은 선사와 화주가 신뢰하는 항만. 다시 찾는 항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며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도 묵묵히 해운, 물류의 길을 열어나 소장단 여러분께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며 간담회에서 준 의견을 바탕으로 전반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글로벌 핵심선사 운항본부 소장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여수광양항만공사

개별주식 위클리옵션 29일 상장

ETF 다양화·해외이탈 완화 기대

한국거래소는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을 오는 29일 상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내 옵션 시장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64개 개별주식 매월간기옵션이 상장돼 거래 중이다. 커버드콜ETF 등 배당형 ETF 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지속됨에도 위클리옵션 관련 상품 부족으로 다양한 ETF 개발에 한계가 있다.

커버드콜ETF란 기초자산 현물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는 ETF 상품으로 가격 상승 이익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시장수요가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종목을 개별주식 위클리 옵션을 상장할 계획이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